

# 성인학습자의 자아존중감, 모 애착이 이러닝 교육과정의 학습자가 선택한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융합적 연구

송승민<sup>1</sup>, 이사라<sup>2\*</sup>

<sup>1</sup>수원대학교 아동가족복지학과, <sup>2</sup>세종사이버대학교 아동가족상담학과

## The Convergence Study on Influences of Self-esteem in Adulthood and Attachment to Mother on Adult Students' Major Satisfaction in e-learning education

Seung-Min Song<sup>1</sup>, Sa-Rah Lee<sup>2\*</sup>

<sup>1</sup>Department of Child & Family Welfare, The University of Suwon

<sup>2</sup>Department of Child & Family Counseling, Sejong Cyber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성인학습자들의 모 애착이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이러닝 교육과정에서 선택한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구조방정식을 통해 검증하였다. 본 연구대상은 이러닝 교육대상자로서 선정가능한 사이버대학에 재학 중인 529명이 설문에 참여하였으며, 선정한 변인들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분석(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아동기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이러닝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성인 학습자들의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아동기 애착 및 자아존중감이 이러닝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성인학습자의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주제어** : 애착, 이러닝,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 성인학습자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attachment across an individual's lifespan. The present study explored how mother attachment in childhood influences adult student's major satisfaction and examined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between mother attachment and major satisfaction. Participants were 529 adult students enrolled in S Cyber University. They answered a questionnaire about their present self-esteem level, attachment to their mother in childhood, and major satisfaction. By using SEM analysis, this study found that adult students' self-esteem completely mediated between their childhood attachment to their mother and their major satisfaction in adulthood. This result indicates influences of a secure attachment and positive self-esteem on major satisfaction of e-learning adult students.

• **Key Words** : attachment, e-learning, self-esteem, major satisfaction, adult students

\*Corresponding Author : 이사라(sararose@hanmail.net)

Received September 18, 2016

Revised October 25, 2016

Accepted December 20, 2016

Published December 31, 2016

## 1. 서론

영아가 주양육자와의 초기관계에서 형성할 수 있는 가장 의미있는 정서발달과업 중 하나인 애착은 많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개인의 발달에 광범위하고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져 왔다. 특히, 인간 발달을 태아기부터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중년기, 노년기로 보는 전생애적 관점에서의 애착연구가 시작되면서 애착이 성인기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자 하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어떤 애착유형을 인생초기에 형성했는가는 성인기에 이르러서도 안정성을 보이며[21], 영유아기에 부모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애착관계는 전 인생을 통해 지속되며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정서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대[33].

생애초기에 형성되는 애착이 성인기에까지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과정은 보울비가 제시한 내적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로 설명할 수 있다. 내적작동모델이란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맥락에 있는 중요한 타인 그리고 자신에 대해 발달하는 내적인 표상으로[25], 생애 초기 영아와 애착대상 사이의 상호작용, 영아 자신의 행동과 이에 대한 피드백을 경험하면서 발달하게 된다[27]. “나는 가치로운 사람인가, 사랑받을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와 “내가 상호작용하는 타인, 즉 애착대상은 신뢰할만하고, 내가 필요할 때 나를 살피봐줄 수 있는 사람인가?”의 두 측면을 반영하는 내적작동모델은, 자신과 타인 두측면으로 내면화되어 훗날 자신이 세상을 이해하고 본인의 애착에 대한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행동하도록 인지, 정서적 반응을 보인다[28]. 즉, 애착은 내적작동모델을 통해 개인의 발달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영향은 성인기까지 지속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애착의 전생애적 영향은 여러 선행연구를 통하여 입증되고 있는데, 부모와의 애착은 성인기 초기의 정서조절능력[30], 성인애착[21, 36], 이성과의 관계와[14, 32], 대인관계능력[42] 등 개인의 정서적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대학교 적응[7, 12]과 결혼적응[34, 44]에도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아동기에 형성된 애착이 타인과의 관계 뿐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애착경험을 통해 형성된 내적표상 중 자아에 대한 모델은 자아존중감, 자아효능감 등 자신에 대한 신뢰,

평가 등으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성인기 심리적 적응과 관련한 다수의 성인애착연구에서는, 자아와 관련한 척도를 사용하여 자아-모델차원의 내적 작동모델을 양적인 방법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24, 34]. 자아와 관련한 여러 개념들 중 자아존중감은 스스로에 대한 평가로서, 자신의 과거 성취했던 경험과 의미 있는 타자로부터 경험한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 자아상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가치판단이다[40, 51]. 이는 특정한 문제 해결능력에 대한 태도를 반영하는 자아효능감보다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평가를 포함하고 있다.

어머니와의 애착은 자아존중감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둘 사이의 밀접한 관계는 다수의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입증되어 왔다. 유아기에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했던 전청소년기 아동은 높은 자아존중감을 나타냈으나, 혼란 애착을 형성했던 전청소년기 아동은 낮은 자아존중감을 나타내었고[45], 모와의 안정애착과 청소년의 높은 자아존중감 사이에는 정적인 관계가 있었다[29, 31]. 또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부모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했을 경우 더 높은 자아존중감을 나타내고 있어[18, 48] 부모와 맺은 애착은 성인기의 자아존중감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전 생애동안 작용하여 새로운 환경이나 과업에 대한 적응 및 만족도에 영향을 주게 된다.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은 대학생활에 대한 적응, 자신이 선택한 전공에 대한 만족 등에 영향을 미쳐 대학생활의 질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 중 전공만족도란 자신이 선택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준에 비교해서 현재 자신의 전공을 평가하는 기준으로[32], 자신의 전공에 대하여 느끼는 주관적 만족감이다. 국내의 유아교육과, 간호학과, 체육학과, 방사선과 등 다양한 학과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은 전공만족도와 정적인 상관에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12, 19] 두 변인 사이에 유의한 관계를 예측할 수 있다. 한편, 전공 만족도는 대학생의 학교적응, 학업동기와 학점성취를 예측하고 있을 뿐 아니라[1, 13, 43] 주관적 행복감과[17] 졸업 이후 가지게 되는 직업에서의 직무만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22], 전공만족도가 대학생활 뿐 아니라 전반적인 행복감, 직업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개인 내적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 경로를 밝히는 것은 전공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의 마련에 근거가 되는 동시에, 성인기 대학

생활과 이후의 삶의 질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시도가 될 것이다.

아직까지 애착과 전공만족도 사이의 직접적인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찾아보기 어렵지만 애착과 학교적응간의 관계를 살핀 여러 선행연구들을 통해 애착과 전공만족도 사이의 관계를 추측해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애착은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학교적응의 하위요인 중 하나인 학문적응 역시 애착의 영향을 받는다[10, 41, 50]. 학문적응이란 학업에 대한 흥미, 동기, 참여도 및 학업적 성취를 반영하는 것으로, 대학생의 학업에는 자신의 전공이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학문적응과 전공만족도는 상당한 유사성을 보인다. 이를 통해 애착이 전공만족도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애착과 전공만족도 사이의 관계를 탐색한 연구는 부족한 편으로, 애착의 전생애적 영향력을 밝히고,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보다 다양한 요인을 밝히기 위하여 이 둘 간의 관계를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즉, 애착은 내적작동모델을 통하여 성인기의 자아존중감과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자아존중감은 스스로의 대한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가치평가로서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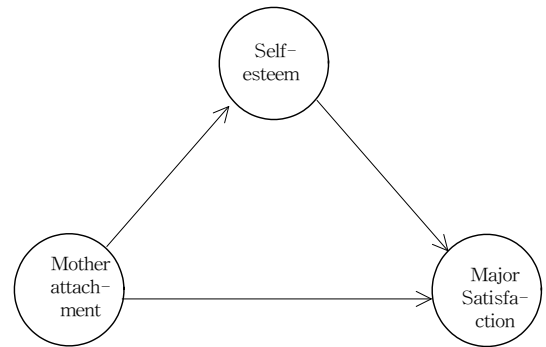
한편, 지금까지 전공만족도와 관련한 연구가 다양한 학과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에 반하여, 사이버대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비한 편이다. 사이버대학은 e-learning 교육체계를 통한 학사행정과 교수-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형태의 대학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고등교육을 제공할 목적을 가지고 지난 2008년도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4년제 대학 학위인정기관으로 발돋움하였다[4, 15]. 사이버대학은 원격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통학하기 어려운 직장인, 전업주부, 제2의 인생을 꿈꾸는 성인들의 진학률이 높은 편으로[5], 학생들은 다양한 사회인구학적 배경을 지니고 있다. 실제로 본 연구의 대상인 S사이버대학생들 중 75.1%가 30대 이상의 연령이었고, 80%가 가정주부 외의 다른 직업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사이버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애착과 자아존중감의 영향력을 밝히는 것은 연령과 사회적 경험의 차이와는 상관없이 지속되는 애착과 내적표상의 영향력을 밝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동시에 사이버대학은 2001년 9개 대학에 정원 6,220명에서 시작하여 2014년에는 총 18개의 사이버대학과 3개의 사이버전문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수가 모두 118,231명으로 빠

른 양적인 팽창을 보이고 있어, 사이버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선행요인들을 탐색하는 것은 급격한 양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는 e-learning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유의한 시도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대학생들을 대상으로 e-learning교육을 통한 전공교육에 있어 애착과 자아존중감이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밝히고자 하며, 특히 애착과 전공만족도 사이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여 이들 사이의 구조적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모 애착과 이러닝 교육체계에서 학습하고 있는 성인학습자의 자아존중감이 선택한 전공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어떠한가?



[Fig. 1] Model

## 2. 연구방법

###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S 사이버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684명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중 응답이 충실하지 않은 155명을 제외한 529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참가자들의 평균연령은 37.4세였으며, 참가자들의 인구학적 특성은 <Table 1>에 자세히 제시하였다.

(Table 1) Participant's socio-demographic variables (N=529)

	Variable	Frequency (%)
<u>Sex</u>	Male	170(32.1)
	Female	359(67.9)
<u>Age</u>	20's	128(24.2)
	30's	195(36.8)
	40's	150(28.4)
	50's	56(10.6)
<u>Monthly income</u>	Below 1,000,000	26(4.7)
	1,000,000~2,000,000	156(28.3)
	2,000,000~3,000,000	107(19.4)
	3,000,000~4,000,000	102(18.5)
	4,000,000~5,000,000	75(13.6)
	Over 5,000,000	85(15.4)
<u>Marital status</u>	Never married	167(31.6)
	Married	335(63.3)
	Divorced	20(3.8)
<u>Job</u>	Unemployed/ Homemaker	110(20)
	Laborer/Service-job worker	36(6.5)
	Self-employed	30(5.4)
	Office worker	68(12.3)
	White color/Teacher	144(26.1)
	Professionals	30(5.4)
	High-ranking officer	18(3.3)
	Others	112(20.3)

## 2.2 측정도구

### 2.2.1 애착

한국행동과학연구소에서 2000년(제32차)에 만 26세의 종단연구 대상자들에게 응답하게 한 아동기 어머니의 양육유형에 대한 회고식 6문항을 아동기 부모-자녀에 대한 내적표상을 측정하는 도구로 선택하였다[39]. 각 문항은 어머니의 따뜻한/반응적, 양가적/비일관적, 냉담한/거부적 양육유형을 나타낸다. 5점 리커트 척도 응답으로 “전혀 그렇지 않았다”에서 “매우 그랬다”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각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유형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문항의 내용은, “어머니는 대체로 나에게 따뜻하고 민감하게 반응하셨다...”, “어머니는 차갑고 멀게 느껴졌고, 나를 거부하셨고, 내가 바라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셨다...”, “어머니는 나에게 대한 반응이 매우 비일관적이었...” 이다. 척도의 신뢰도 분석결과 .82로 나타났다.

### 2.2.2 자아존중감

성인기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79)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10문항으로 이

루어졌으며 주로 다양한 직업을 가진 성인을 대상으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Social welfare scales, 2007) 본 연구대상자들에게 적합한 척도로 볼 수 있다[9]. 문항은 “나는 다른 사람처럼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다른 사람들만큼 일을 잘 할 수가 없다” 등, 긍정적인 문항 5개와 부정적인 문항 5개로 구성되었다. 응답은 4점 리커트 척도로 “매우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에 응답하도록 구성되었고, 점수가 높으면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보여주는 것이다. 구조방정식 분석을 위해 요인분석을 하여 두개의 요인 - 긍정적인 자아존중감, 부정적인 자아존중감 - 으로 구성된 것을 확인하였고, 척도의 신뢰도분석결과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요인은 .78, 부정적인 자아존중감요인은 .70으로 나타났다.

### 2.2.3 전공만족도

전공만족도는 임문정(2000)의 사회복지전공 선택동기와 만족도에서 사용한 문항들을 사용하였다[16], 총 13문항으로, 문항내용으로는 “나의 전공은 졸업하면 내가 원하는 직업선택이 쉽다”, “나의 전공은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데 유리하다”, “나의 전공은 평소 나의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나의 전공은 평소에 내가 하고 싶은 일과 일치한다”, 등 전공만족도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방법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리커트 방식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구조방정식 분석을 위해 요인분석을 하여 두개의 요인 - 직업선택, 장래성 - 으로 구성된 것을 확인하였고, 신뢰도는 직업선택 .73, 장래성 .79로 나타났다.

## 2.3 자료수집 및 절차

본 연구는 S 사이버대학교 학습운영체계를 통해 사회복지학과와 아동복지학과에 개설된 과목들 중 9과목 강의실에서 학생들이 설문지를 다운받아 응답하게 한 후 전체 응답한 설문지를 시스템 상에서 코딩하였다. 연구 모형검증을 위해 기술통계, AMOS 18.0 을 통해 확인적 요인분석과 상관관계분석,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하였고,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요인분석 시행결과, 자아존중감과 전공만족도 각각 2개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조방정식을 통해 연구모형을 검증하고자 했는데,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

하여 표집크기에 영향을 받는  $\chi^2$ 값, 표본크기와 비교적 독립적으로 모형과 자료간의 일치된 정도를 나타내주는 RMSEA, TLI, CFI를 이용하였다.

### 3. 연구결과

먼저, 경로모형에서 잠재변수들이 측정변수들을 얼마만큼 설명하는지를 나타내는 타당성 검증을 위해, 측정 모형의 적합도 검증과 요인부하량 확인 후, 확인적 요인 분석(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시행하였다. 또한,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각 잠재변인들 간의 유의한 관계를 확인한 후, 각 잠재변수를 연구모형에 따라 서로 연결하여 구조모형 분석을 시행하였다. 마지막으로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에 대한 어머니와의 애착과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에 대한 유의확률을 구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 3.1 측정모형 분석

어머니 애착,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전공만족도의 구성개념들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chi^2=36.660(df=11)$ , GFI=.978, TLI=.945, CFI=.971, RMSEA=.070(90%의 신뢰구간: .046~.095)로 나타나, 적합도 지수들이 기준을 충족하였다. 또한, 측정변수들의 C.R.(Critical Ratio)값이  $p<.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요인부하량( $\beta$ )들도 모든  $\beta$ 값의 절대값이 .551-.874로 나타나, 모든 측정변인이 잠재변인을 측정하는데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Factor loadings of observed model (N=529)

Latent Variable	Observed variable	B	$\beta$	S.E.	C.R.	p
Mother attachment	Mother attachment 1	1	.727	-	-	-
	Mother attachment 2	.943	.862	.064	14.635	***
	Mother attachment 3	1.025	.726	.072	14.615	***
Self-esteem	Positive self-esteem	1	.838	-	-	-
	Negative self-esteem	.820	.653	.116	7.048	***
Major Satisfaction	Career choice	1	.551	-	-	-
	Potential	1.423	.874	.358	3.978	***

\*\*\* $p<.001$ .

한편, 잠재변인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어머니 애착과 전공만족도 간의 상관을 제외한 나머지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가 유의했다(<표 3>). 즉, 어머니 애착과의 애착이 안정적일수록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높았으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대학생이 지각하는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Table 3> Correlation among latent variables (N=529)

Latent variable	1	2	3
1. Mother attachment	-		
2. Self-esteem	.35**	-	
3. Major satisfaction	.06	.34**	-

\*\*\* $p<.001$ .

#### 3.2 구조모형 분석: 어머니 애착 및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이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분석

어머니 애착과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이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살펴보기 위해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한 결과,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각각  $\chi^2=36.660(df=11)$ , GFI=.978, TLI=.945, CFI=.971, RMSEA=.070(90%의 신뢰구간: .046~.095)로 나타나, 구조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4> Fit index of observed model

$\chi^2$	df	p	GFI	TLI	CFI	RMSEA (90% confidence interval)
36.660	11	.000	.978	.945	.971	.070(.046~.095)

구조모형에서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표 5>에서와 같이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beta=.351, p<.001$ ), 자아존중감은 전공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beta=.360, p<.01$ ). 그러나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beta=.071, p>.05$ ).

<Table 5> Path estimates of latent variabl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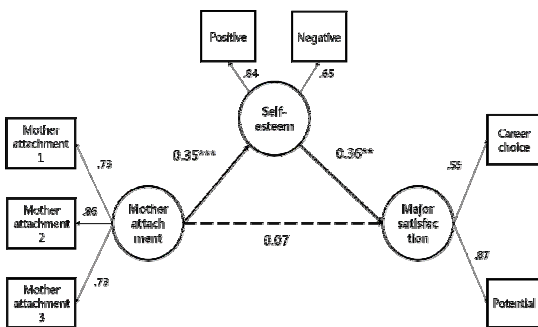
			B	$\beta$	S.E.	C.R.	$p$
mother attachment	→	Self-esteem	.153	.351	.026	5.972	.000
Self-esteem	→	Major satisfaction	.377	.360	.115	3.285	.001
Mother attachment	→	Major satisfaction	.032	.071	.029	1.122	.262

한편, 변인들 간의 간접효과에 대한 유의확률을 구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한 결과(<표 6>),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경로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eta$ :.126,  $p$ <.05).

<Table 6> Total effects and effect decomposition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Mother attachment	→	Self-esteem	.351*	-	.351*
Self-esteem	→	Major satisfaction	.360*	-	.360*
Mother attachment	→	Major satisfaction	.071	.126*	.056

\* $p$ <.05.



\*\* $p$ <.01, \*\*\* $p$ <.001.

[Fig. 2]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for adult students' major satisfaction

###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사이버대학교에 재학 중인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여, 아동기시절 어머니와 애착관계에 대한 내적표상과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간의 구조적 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많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부모와의 애착관계는 전 생애에 걸쳐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내적작업모델의 자기-모델을 반영하는 지표로서, 개인의 적응과 건강한 발달적 측면에 작용하는 유의미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37]. 따라서 다양한 사회인구학적 배경을 가진 사이버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신이 선택한 전공에 대한 만족도와 애착과 자아존중감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애착이 인생 전반에 영향력을 미치는 중요한 정서적 변인이라는 점과, 성인학습자의 성공적인 학교생활적응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동시에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와의 애착에 대한 내적표상과 전공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성인학습자의 학교생활적응에 자아존중감의 중요한 역할도 밝히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보고자 한 모 애착,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의 경로를 분석한 결과,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자아존중감을 통해 영향을 주는 간접적인 경로는 유의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모 애착이 자아존중감을 통해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경로, 즉,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한 경로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연구분석 결과, 모에 대한 애착은 성인학습자의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부모에 대한 애착과 자아존중감 사이의 정적인 관계를 밝힌 선행 연구결과들과[23, 49] 일치한다. 애착과 자아존중감 사이의 정적인 관계는 Bowlby가 제시한 내적작업모델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영유아기 시절에 반응적이고 애정적인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일관되게 경험해서 성장한 개인은 부모에 대한 긍정적인 내적작업모델을 형성하고, 그러한 경험은 자신이 가치로운 존재라고 생각하는 긍정적 내적작업모델을 갖게 된다[26]. 즉, 애착대상인 주양육자에 대한 긍정적인 형상과 자기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형상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 안정애착은, 긍정적인 자아감을 이루게 되는데, 즉, 안정애착은 높은 자아존중감 형성의 기본이 된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편, 자아존중감은 전공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아존중감과 전공만족도간의 정적인 관계를 밝혀온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관련연구에 따르면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신의 진로에 대하여 보다 명확한 상을 지니고 자신의 진로에 대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일관적인 정체성을 지니며[47] 자신에게 적절한 진로를 선택하고 진로발달 과업들에 보다 유능하게 대처할 수 있는 성숙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35]. 따라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개인은 자신의 진로를 위하여 선택한 전공에 대해 보다 안정적이며 성숙한 태도로 임하므로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어머니와의 애착은 성인기 전공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았지만,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기 적응에 부모에 대한 애착보다는 자아존중감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힌 선행연구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13, 48]. 이는 아동기에 경험한 부모와의 애착 경험 자체가 성인기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기 보다는, 애착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내적작동모델을 통하여 지속적인 영향력을 유지하는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종합하면, 모 애착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하여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 즉, 아동기에 형성된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성인기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며, 자아존중감은 전공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쳐 애착이 자아존중감을 통하여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인터뷰나 관찰을 통한 답변이 아닌 설문지 응답 자료를 분석자료로 사용했기 때문에 변인들 간의 관계를 해석하는데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어머니의 애착관계를 회고식 질문을 통해 측정하였으므로, 응답의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가족보고, 인터뷰 등 다른 다양한 방법을 통해 측정된 내용의 신뢰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S사이버대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대상이 한정되므로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와의 애착만을 조사하였기 때문에 아버지와의 애착이 성인기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는 후속연구를 제안하는 바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애착의 평생

애적 영향력을 밝히기 위하여 지금까지 활발한 애착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성인기로 연구대상을 확장했다는 점과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전공만족도의 사이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적 역할을 밝혀 전공만족도 대한 자아존중감의 중요성을 확인한 점, 애착이 성인기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밝혀 전생애적인 관점에서의 애착이론을 실증적으로 지지함과 동시에 아직까지 연구되지 못했던 이러닝 교육기반에서 사이버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와 관련한 요인을 탐색함으로써 전공만족도 연구의 대상을 확장하고, 사이버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REFERENCES

- [1] S. H. Kang, "Predictors of Academic Achievement and Dropout Thinking among University Students", Korean Society for Educational Evaluation, Vol. 23, No. 1, pp. 29-53, 2010.
- [2] Ministry of Education, Educational Statistics, 2014.
- [3] K. H. Kim, H. S. Ha, "A Study of Department Satisfaction Factors of Undergraduate Student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 1, No. 1, pp. 7-20, 1999.
- [4] M. E. Kim. & K. Lim, "Analysis of Factors for Learning Satisfaction Based on Gender in Online Graduate University Setting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42, pp. 33-42, 2016.
- [5] C. H. Kim, "Shared Value Expectation on Lifelong Educa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 12, pp. 325-336, 2015.
- [6] M. H. Nam, M. R. Lee, "Factors Influencing Subjective Happiness Index of Health Behavior, Self Esteem and Major Satisfaction by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2, No. 10, pp. 363-374, 2014.
- [7] E. H. Park, E. S. Choi, "Mediation Effects of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in the Relations between Adult Attachment and Adaptation to College", The Korean Journal of

-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28, No. 1, pp. 57-82, 2015.
- [8] S. H. Park. & J. H. Ahn, "A Study on the Difference of Career Barriers,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Career Competencies based on Gender, Grade, and Fields of Major of Undergraduate Students in the Age of Convergenc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8, pp. 69-80, 2016.
- [9] Social Welfare Scales, Seoul: Yangsoewon, 2008.
- [10] M. S. Oh, "A Study on the Effects of Parenting Attitudes on School Adjustment in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4, pp. 197-203, 2015.
- [11] G. A. Lee, N. H. Yu, E. G. Lee, J. Y. Jeon, G. H. Lee, "The Relationship of Academic Personality Types and Major Satisfaction on Academic Achievement Related Variable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16, No. 1, pp. 107-121, 2004.
- [12] G. Y. Lee & A. C. Kim, " The Relationships of Academic Self-Efficacy, Outcome Expectation and Department-Adaptation of Students Majoring in Spor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2, pp. 509-517, 2016.
- [13] S. R. Lee, J. Y. Lee, "The Influences of Child-Father Attachment and Self-Esteem in Adulthood on Adult Students' School Adjustment",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Vol. 50, No. 4, pp. 1-10, 2012.
- [14] S. Y. Lee, S. Y. Park, Y. K. Chee, "The Mediating Role of Separation-Individuation in the Association of College Students' Attachment in Childhood Attachment to Their Par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21, No. 9, pp. 101-122, 2014.
- [15] J. Y. Lee, "r-Learning and Educational Information Policies", Journal of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1, No 1, pp. 1-15, 2010.
- [16] M. J. Lim, "A Study of Selective Motives and Satisfaction Extent of Social Welfare Majors: focusing on graduate students", Department of Social Work Graduate School Kangnam University, 2000.
- [17] Y. R. Joung, "An Analysis on the Current States and the Development of Quality Assurance Strategies in Cyber University", Korea Education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2010.
- [18] H. Y. Jung, " The Convergence Influence of Life Stress, Depression and Ego Resiliency on College Life Adapta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7, pp. 259-268, 2016.
- [19] Y. K. Choi "Effects of Self-esteem, Radiological Technologist Image and Major Satisfaction on College Life Adaptation of Radiologic Science (Technology) Students", The Korea Contents Society, Vol. 14, No. 12, pp. 283-293, 2014
- [20] E. S. Cho, "Effect of Major Satisfaction on Subjective Well-Being for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the Moderating Effect of Peer Relationships",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Vol. 17, No, 4, pp. 51-70, 2013.
- [21] G. B. Han,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Parental Attachment in Childhood and Depression of College Students: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Adult Attachment",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 14, No. 5, pp. 3065-3087, 2013.
- [22] S. R. Han, S. G. Chae, M. Kim, "Influence on job satisfaction of Dept. of Beauty Art Hair major's major satisfaction", Journal of the Korean Beauty Art Society, Vol. 8, No. 3, pp. 77-89, 2014.
- [23] Armsden, G. C., & Greenberg, M. T.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16, No. 5, pp. 427-454, 1987.
- [24] Bartholomew, K., & Horowitz, L. M.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A test of a four 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61, pp. 226-244, 1991.
- [25] Bowlby, J. "Attachment and Loss. Vol 2: Separation: Anxiety and anger", New York: Basic



- Books, 1973.
- [26] Bowlby, J. "Attachment and Loss. Vol. 3. Loss, sadness and depression", New York: Basic Books, 1980.
- [27] Bretherton, I., Ridgeway, D., & Cassidy, J. "Assessing internal working models of the attachment relationship: An attachment story completion task for 3-year-olds". In M. Greenberg, D. Cicchetti, & E. M. Cummings (Eds.), *Attachment in the preschool years: Theory, research, and intervention*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p. 273 - 308, 1990.
- [28] Bretherton, J. "Attachment theory: Retrospect and prospect",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Vol. 50, pp. 3-35, 1985.
- [29] Buck, F., & Seiffge, K. "Romantic relationships in Intra-ethnic adolescent couples in Germany: The role of attachment to parents, self-esteem, and conflict resolution skill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Vol. 34, No. 2, pp. 128-135, 2010.
- [30] Cabral, J., Matos, PM, Beyers, W., & Soenens, B. "Attachment, emotion regulation and coping in Portuguese emerging adults: a test of a mediation hypothesis", *The Spanish Journal Of Psychology*, Vol. 15, No. 3, pp. 1000-12, 2012.
- [31] Cai, M., Hardy, S., Olsen, J., Nelson, D., & Yamawaki, N. "Adolescent - parent attachment as a mediator of relations between parenting and adolescent social behavior and wellbeing in China",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Vol. 48, No. 6, pp. 1185-1190, 2013.
- [32] Cassidy, J. "Truth, lies, and intimacy: An attachment perspective". *Attachment & Human Development*, Vo. 3, No. 2, pp. 121-155, 2001.
- [33] Cicirelli, V. "Adult Children's attachment and helping behavior to elderly parents : A Path model",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45, 1983.
- [34] Collins, N. L., & Read, S. J. "Adult Attachment , Working Models, and Relationship Quality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8, Vo. 4, pp. 644-663, 1990.
- [35] Crook, R. H., Healy, C. C., & O'Shea, D. W. "The linkage of work achievement to self-esteem, career maturity, and college achieve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 25, pp. 70-79, 1984.
- [36] Grossmann, K., & Grossmann, K. E. "The impact of attachment to mother and father at an early age on children's psychosocial development through young adulthood", *Centre of Excellence for Early Childhood Development*, pp. 1-8, 2007.
- [37] Harter, S. "Causes, correlates, and the functional role of global self-worth: A life-span perspective", In R. J. Sternberg & J. Kolligian (Eds.), *Competence considered*,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pp. 67-97, 1990.
- [38] Harter, S. "Historical roots of contemporary issues involving self-concept", In B. A. Bracken(Ed.), *Handbook of self-concept: Developmental, social, and clinical considerations*, New York: Willey. pp. 1-37, 1996.
- [39] Hazan, C., & Shaver, P. R. (1987). "Conceptualizing romantic love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2, pp. 511-524.
- [40] Hoelter, J. W. "The Structure of Self-Conception: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Vol. 49, No. 5, pp. 1392-1407, 1985.
- [41] Holt, L. J. "Help seeking and social competence mediate the parental attachment-college student adjustment relation". *Personal Relationships*, Vo. 21, No. 4, pp. 640-654, 2014.
- [42] Kang, J., Park, H., Park, T., & Park, J. "Path analysis for attachment, internet addiction,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of college students", *Source of the Document Communications in Computer and Information Science*, Vol. 342, pp. 217-224, 2012.
- [43] Kim Y. L., & Lee S. M. "Effect of satisfaction in major at university on academic achievement among physical therapy students". *Journal Of*

Physical Therapy Science, Vol. 27, No. 2, pp. 405-409, 2015.

- [44] Kirkpatrick, L. A., & Davis, k. E. "Attachment Style, Gender, and Relationship Stability: 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66, No. 3, pp. 502-512, 1994.
- [45] Lecompte, V., Moss, E., Cyr, C., & Pascuzzo, K. "Preschool attachment, self-esteem and the development of preadolescent anxiety and depressive symptoms", Attachment and Human Development, Vol. 16, No. 3, pp. 242-260, 2014.
- [46] McCormick, C. B., & Kennedy, J. H. "Parent-Child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Self-Esteem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23, No. 1, pp. 1-18, 1994.
- [47] Munson, W. W. "Self-esteem, vocational identity, and career salience in high school students",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Vol. 40, No. 4, pp. 361-368, 1992.
- [48] Orrie D., Omrit B. I., & Jenny K. "Attachment, self-esteem and test anxiety in adolescence and early adulthood. Educational Psychology, Vol. 34, No. 6, pp. 659-673, 2014.
- [49] Rice, K. G., Cunningham, T. J., & Young, M. B. (1997). "Attachment to parents, social competence, and emotional well-being: A comparison of black and white late adolesc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 44, pp. 89-101, 1997.
- [50] Rice, K. G., FitzGerald, D. P., Whaley, T. J., & Gibbs, C. L. "Cross-sectional and longitudinal examination of attachment, separation-individuation, and college student adjustment", Journal of Counselling & Development, Vol. 73, pp. 463-474, 1995.
- [51] Rosenberg, M. "Society and adolescent self image",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NJ. 1965.
- [52] Santos, P. J. "Goal instability, self-esteem, and vocational identity of high school Portuguese students" Análise Psicológica, Vol. 2, pp. 229-238, 2003.

저자소개

송 승 민(Seung-Min Song)

[정회원]



- 1998년 8월 :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 석사
- 2003년 6월 :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 박사
- 2005년 3월 ~ 현재 : 수원대학교 아동가족복지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 영유아보육

이 사 라(Sa-Rah Lee)

[정회원]



- 1993년 2월: 이화여자대학교 학사
- 1995년 8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 1995년 8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
- 2007년 3월 ~ 현재 : 세종사이버대학교 아동가족상담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 아동청소년발달